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

조 대 현*

오늘날의 음악교육은 다양한 음악적 자극에 의해 발생하는 자발적 경험과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학습의 결과물인 음악적 지식과 실기능력의 향상만을 목표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학습자 스스로의 자연스런 경험과 학습을 장려하기보다는 이미 정형화된 지식만을 제공하고 평가하여, 오히려 다양한 관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학습자들의 능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야기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학습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확산적으로 사고하며, 나아가 그 안에서 보다 정교화 된 지식과 개념,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상 목표’의 중요성을 교육철학 및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모델을 구성함으로써, 이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과정 상 목표, 학습자 중심교육, 의식의 흐름

차 례

I. 서 론

II.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과정 상 목표 설정의 상관적 의미

1.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 및 의의
2.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전제조건: 과정 상 목표의 설정

III.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모델 제안

1.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
2.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예

IV. 결론 및 제언

*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소

I. 서론

오늘날 음악교육 현장에서의 최대 이슈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개최된 다양한 음악교육 관련 행사의 주제들을 살펴보면,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예를 들어, 2011년 한국음악교육학회(KMES) 주최로 열린 전주교육대학교에서의 콜로키움 주제가 바로 ‘음악교과의 재구성’이었다. 여기에서는 교과의 재구성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제안과 더불어 재구성을 위한 교사의 자질과 역할 등이 PCK(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Shulman, 1987)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으며, 또한 Orff 관점에서의 음악교과서 재구성 시연이 워크숍 형태로 소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월 서울 천왕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직무연수(서울교육 2011-555)에서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이 발견된다. ‘음악교과서 재구성의 실제’란 제목 아래 진행된 직무연수는 음악교과 재구성 방향에 대한 이론적 제시와 함께 국악 및 가창 영역에서의 재구성과 놀이를 통한 재구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다양한 실례를 통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중요성은 음악에 대한 정의적 측면에서도 나타난다. 2010년 ‘음악교육: 다양성과 조화’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 학술세미나는 실기 및 이론학습 위주의 ‘음악을 위한 교육’(Erziehung zur Musik)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음악을 통한 교육’(Erziehung durch Musik)으로의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명제적 정의의 범주와 교육적 목적의 영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융·복합적 관점에서의 음악교육을 강조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음악교육 특별 세미나에서도 ‘창의·인성교육과 음악교육’의 관계를 재조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교유의 인성이 바탕이 되는, 그래서 남과는 구별되는 창의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음악교육 환경, 즉 전통적으로 시행해 온 실기 위주의 획일적인 음악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개개인의 음악적 배경과 관심 및 목적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음악교육이 논의되었다.

역사적으로도 교육과정 재구성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발견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적용된 이래 제기된 학교 공교육에 대한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심각하게 논의되었던 것이 바로 자발적 경험과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기보다는 반복학습의 결과물인 이론적 지식과 실기능력의 향상만을 목표하는(함혜란, 2001; 윤현진, 2002; Cho,

2002; 조대현, 2010), 그래서 획일적인 교육계획과 내용 체계 아래 동일하게 시행되었던 교과서 중심(textbook-based), 또는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교육(curriculum-based school education)이다. 현대의 교육과정은 이러한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창의·인성교육’을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날의 교육은 학습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찰, 교육, 평가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또한 같은 맥락에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학교 수준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전제되는 것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사의 교과 내용 재구성 능력이다.

Hager(1993)의 ‘열린교육’(open education)은 오늘날 교육과정 재구성의 당위성을 이끌어 낸 대표적인 선행연구라 할 수 있다. 물론 Hager 이전에도 Lewy(National and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1991)나 Klein(A perspective on the gap between curriculum theory and practice: 1992) 등이 제기하는 이론과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교육적 문제에 관한 연구들이 발견되기는 하지만, Hager의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속에 나타난 교육과정 재구성의 이론적 내용을 열린교육이라는 관점을 통해 보다 구체화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Hager(1993)는 열린교육을 ‘전통적인 교육과정과 현 사회의 일반적 상황에 대응하여 직관적 반응을 취한 일종의 교육적 현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열린교육이라는 컨셉 아래 ‘무엇이 학생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활동이고 경험인가’라는 교육계의 근본적인 물음에 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Hager의 생각은 이인효 외(1996; 1997; 1998), 은용기(1998; 2001) 등에 의해 한국식 열린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교육에 대한 연구와 교사의 자질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교차적으로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라는 영역으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토대로 발표된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진종철(2000)의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저해요인 분석’과 김소영(2004)의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 김평국의 ‘초등(2004) 및 중등학교(2005) 교사들의 교과내용 재구성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손승희의 ‘교과내용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조사’(2005) 및 ‘교과내용 재구성의 의미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2006), 그리고 자폐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협동놀이를 활용한 정순옥·김수연(2008)의 교과활동 재구성 사례 연구 등이 있다. 한편 음악교육 영역에서의 재구성에 대한 연구결과는 높은 학문적 관심에 비해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음악 교과서 재구성의 방향’을 제시한 주대창(2012)의 연구와 본 연구자가 2011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세미나에서 구두 발표한 ‘음악교과 재구성에 있어 과정 상 목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러한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연구들이 모두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 지역사회 중심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음악학습을 지양하고, 학습자 스스로가 발견하고 사고하며, 나아가 개개인의 현상학적 장(phenomenal field) 안에서 보다 정교화 된 지식과 개념의 형성을 목표하는 음악교과 재구성의 당위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과정 상 목표’(procedural goals) 설정의 의미를 교육철학 및 교육심리학적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 및 의의는 무엇인가?

둘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서 과정 상 목표의 설정은 교육철학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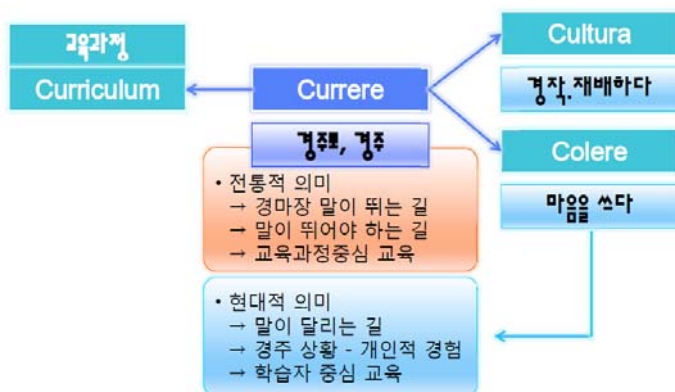
셋째,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은 어떠한가?

Ⅱ. 교육과정의 재구성 및 과정 상 목표 설정의 상관적 의미

1.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 및 의의

교육은 인간이 행하는 의도적 활동으로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갖고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육 목적 및 방향의 설정은 교육이 의도하는 교육적 가치판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러한 교육적 가치판단의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서두에서 언급한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한 교육계의 적극적인 움직임,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흔적을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체계적인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지역사회나 학교, 또는 학급 및 학습자의 상황 등 다양한 배경과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기반한 학교 및 교사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천은 어원적 의미 변화에서도 발견된다. 영문 표현으로 ‘curriculum’이라 불리는 ‘교육과정’은 ‘currere’라는 라틴어에서부터 유래되었다(김영봉 외, 2008). currere는 ‘경주로’ 또는 ‘경주’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 ‘경마장의 말이 뛰는 길’ 또는 ‘경마장의 말이 뛰어야 하는 길’을 뜻한다. 즉 ‘뛰고 있는 말’의 입장보다는 ‘뛰어야 하는 경주로’를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curriculum이 갖는 전통적 의미는 바로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확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가리키고 있다. 당시의 교육적 가치판단이 오로지 국가에 의해서만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현대적 의미로써의 curriculum은 전통적 의미와는 달리 교육적 가치판단의 주체를 국가가 아닌 학습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따라서 ‘말이 달리는 길’, 또는 ‘말이 달리고자 하는 길’을 뜻하는 상황적 의미를 담고 있다(그림 1).



[그림 1] 어원적 의미의 변화 과정

currere는 교육과정을 의미하는 curriculum 외에도 많은 새로운 단어들을 파생시켰다. 그 중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교육 관련 파생어는 ‘경작 또는 재배하다’는 의미를 가진 ‘cultura’와 ‘마음을 쓰다’라는 의미의 ‘colere’이다. 만약 우리가 교육을 농사에 비유한다면, 교사는 많은 수확을 목표하는 농부의 입장이 될 것이다. 이때 농부는 자신의 입장에서, 본인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농사 방법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미 지식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확일적인 방법이나 도구만을 통해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수확할 것인가에 따라, 즉 대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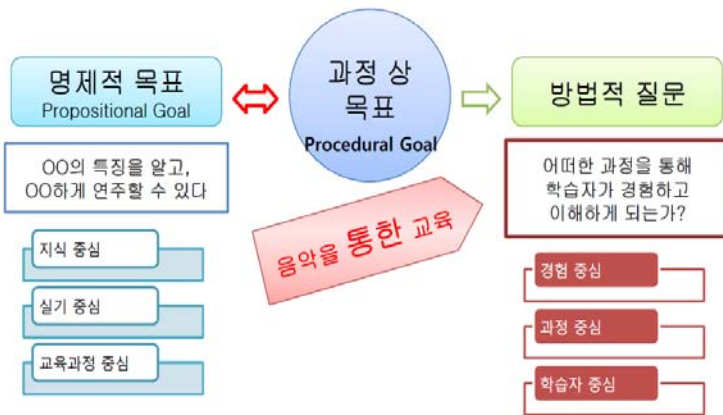
따라 ‘언제’, ‘어떠한 조건에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등을, 본인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고려 속에서, 마음을 다해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때 농부는 자신이 원하는 풍성한 수확물을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다. 현대적 의미의 curriculum 이 뜻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 교사는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습자를 고려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이는 학습자 개인의 상황과 배경, 그리고 교육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학생과 교사의 1:1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수준 교육과정으로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재구성의 결과물은 학습자들이 달려야 하는 수동적 경주로가 아닌,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말이 달리고자 하는 길’을 통해 도출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또한 ‘말이 달리고자 하는 길’에서 ‘말이 달리고자 하는 길’로의 변화를 겪어 왔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의 교수요목의 시기를 거쳐 1954년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총 여덟 차례에 이르는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었으며, 이러한 개정은 교육철학 및 교육심리학적 배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대적으로 발생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 가변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과 그들의 창의적인 반응에 대해 존중하기 보다는 사회가 기대하고 학교가 목표하는 획일적 결과물만을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였으며(이동원, 2002; 김평국, 2005), 따라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재구성의 빈도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났다(박순경, 2003). 이러한 배경 아래, 교과서 중심의 학교교육에서 창의적인 교육과정 중심으로의 변화에 대해 연구한 김평국(2005)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서 내용보다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손승희(2006)는 교과서를 ‘교육과정 내용의 교수를 위한 학습소재의 한 예’로 정의하였고, 통합적 교육과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대현(2011b)이 ‘무엇(know that)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지식(konw how)을 고민하는 가운데, 교육과정의 실행, 즉 교사의 교육적 행위는 ‘계획된 교육과정을 해석하여 학생들이 학습하는 교실이라는 장에서 조정해 나가는 것’(이경진 외, 2005)이라 규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재구성의 목적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창의적이고 바른 인성을 가진 현대인 양성을 목표하는 이 시대 교사의 당면과제라 할 수 있다.

2.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전제조건 : 과정 상 목표의 설정

1) ‘과정 상 목표’의 정의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의하는 ‘과정 상 목표’(procedural goals)는 ‘명제적 목표’(propositional goals)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흔히 명제적 목표가 지식과 기능에 대한 학습목표, 예를 들어 ‘OO의 특징을 알고, ●●하게 노래, 또는 연주할 수 있다’ 등을 의미하는 한편, 과정 상 목표는 명제적 목표에서 설정한 음악적 지식과 기능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경험하고 이해하게 하는가’ 하는 방법적이고 과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과정 상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교사의 준비가 어떠한가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결과 또한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일례로 과정 상 목표를 설정한 교사의 경우 보다 분명한 교육의 목표와 과정에 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즉 개별 학습자에 적합한 환경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자발적인 내적동기부여를 통해, 종내에는 긍정적인 학습의 결과물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그림 2).



[그림 2] 과정 상 목표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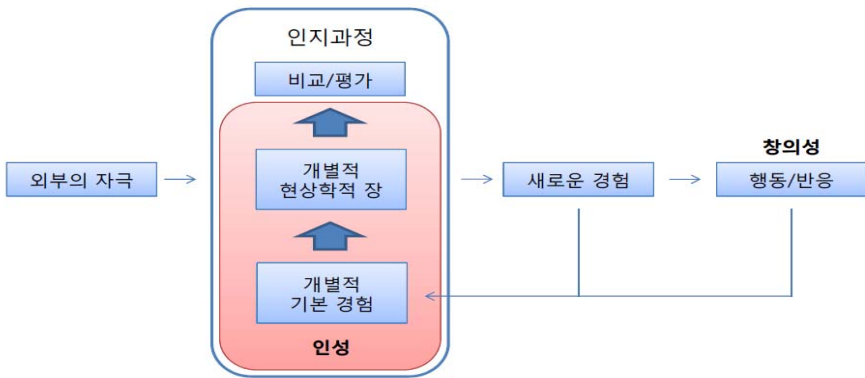
이러한 과정 상 목표에 대한 내용은 직접적이고 체험적인 음악교육을 표방하는 Reimer와 Elliott에게서도 발견된다. Reimer와 Elliott은 학습자가 주체가 되어 경험하고 실천하게 되는 경험중심 및 실천주의 음악교육을 강조하였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바로 학습자 중심의 음악교육이라 할 수 있다. 특히 Elliott(1992)은 문서화된 교육과정을 교육현장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교사 스스로가 커리큘럼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권덕원 외, 2011에서 재인용). 즉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교사 수준 교육과정의 필요성,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의 당위성을 피력한 것이다. 이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요소가 바로 과정 상 목표에 대한 이해와 설정이다. 왜냐하면, 과정 상 목표는 매 행위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다양한 활동과 경험, 그리고 지식 등에 대해 일련의 연속적 관계성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교사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먼저 학습자 수준에 따른 개별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때 설정된 과정 상 목표는 첫째, 개별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적 과정을 보여주는 목표’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게 되며, 둘째, 음악적 활동 속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발달’, 예를 들어 신체적, 언어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적 발달 등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정 상 목표는 학습자를 고려한 음악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내적동기부여에 의한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음악적 경험을 담보하고, 나아가 비음악적 영역에서의 접근을 통한 다양한 학습과 발달을 유도한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 교육을 근간으로 하는 과정 상 목표의 설정은 궁극적으로 음악적 개념에 대한 확일적 학습을 지양하고, 수준별 학습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개별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의 하나라고 규정할 수 있다.

2) 교육철학 및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과정 상 목표의 의미

현대 교육철학자들은 보다 나은 교육을 추구하기 위해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자문과 시도 속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교육철학자들의 실제적인 반응을 물리적인 교육행위보다는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내포한 ‘교육의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Peters(1966)는 교육적 행위의 판단에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의 개념적 기준을 매우 중요한 준거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교육받은 사람이 성취한 것은 크게 ‘지식’과 ‘가치’로 구분된다.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 모두가 지식과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이라는 시간적·공간적 환경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식이라는 요소는 습득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의 경우는 다르다. 왜냐하면 주어진 지식에 대해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특정한 개인적 기준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외부로부터 유입된 정

보에 대해 개별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기준’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조대현, 2010). 이러한 가치기준의 형성은 지식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많은 교육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외부로부터의 지식은 관심과 흥미, 지적능력 및 인지영역의 정도 등과 같은 개인의 전반적인 배경, 즉 주관적인 ‘현상학적 장’(phenomenal field: Rogers, 1951)에 의해 평가되고 이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특정 지식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를 비교하고 판단하여 개별적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하나의 ‘과정’(Hobmair, 1997)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림 3]과 같이 매우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배경 아래 이루어진다.



[그림 3] 개별적 기본경험의 형성 과정

우리는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을 교육의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비교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재적 목적이란, 교육의 목적이 교육적 행위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즉 교육은 성취해야 할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특정한 활동 자체가 이미 목적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외재적 목적은 교육의 도구적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교육이 학습자가 설정한 특정 목적을 위해 하나의 도구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외재적 목적이 내재적 목적을 통해 발현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반복되어지는 다양한 내재적 목적의 형성이 나만의 외재적 목적으로 심화·발전하기 위해 전제되는 필연적 과정인 것이다. 등산이라는 활동의 외재적 목적은 ‘산을 오르는 행위’인 내재적 목적의 반복 속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목적, 예를 들면 등산을 통한 건강유지와 멋진 경치의 감상, 좋은 공기 마시기, 종

은 사람 만나기 등이 상이한 개인적 관심과 요구, 배경에 의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조대현, 2010). 이러한 학습의 과정을 Pestalozzi(1746-1827)는 ‘외면적 직관의 원리’와 ‘내면적 직관의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Herbart(1776-1841)는 ‘전심’과 ‘치사’의 관계¹⁾에서 자발적 가치발견을 위한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그림 4).



[그림 4] 과정 중심 교육환경을 통한 가치 발견의 과정

본 연구는 이러한 교육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과정을 ‘과정 상 목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의 과정 상 목표는 학습자 개개인의 배경과 상황에 따른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목표로한다. 학습자 개개인의 배경을 고려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란, [그림 4]와 같이 현대 사회에 산재한 ‘다양한 지식의 홍수 속에서 특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선별’하는, 즉 ‘know that’의 명제적 지식(propositional knowledge)을 ‘know how’의 방법적 지식(procedural knowledge)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요구되는 ‘개별적인 가치발견의 과정이 담보된 교육’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인성교육’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즉 사회적 기대에 따른 획일적인 인성의 발달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함이 기본이 되는, 즉 남과는 다른 나만의 속성에 기초한 사회적 인성의 개발을 목표로하는 것이다. 동일한 환경 속에서, 역시 동일한 학습목표를 설정했다 해도, 그 목표를 향

1)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학습의 결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본 Herbart는 흥미가 발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전심과 치사의 관계를 강조하였다. 전심은 개개의 대상에 집중하여 그것의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는 심적 상태로써 1차적 인지의 단계이며, 치사는 전심에 의해 얻어진 개별적 표상을 특정한 관계 아래 결합하여 통일하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사고의 결과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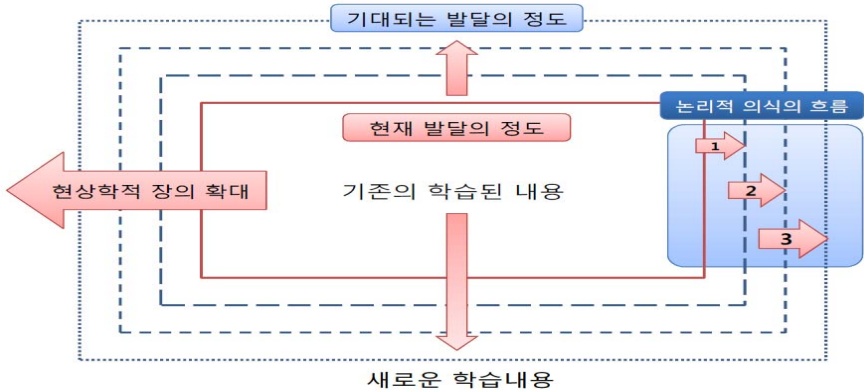
해 전진하는 과정은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습자 개개인을 고려한 ‘과정 상 목표를 담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 요구되며, Ausubel(1978)은 이러한 역할의 수행자를 ‘선행조직자’(Advance Organizer)라 명하고 있다.

Ⅲ.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모델 제안

1.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교육과정 재구성의 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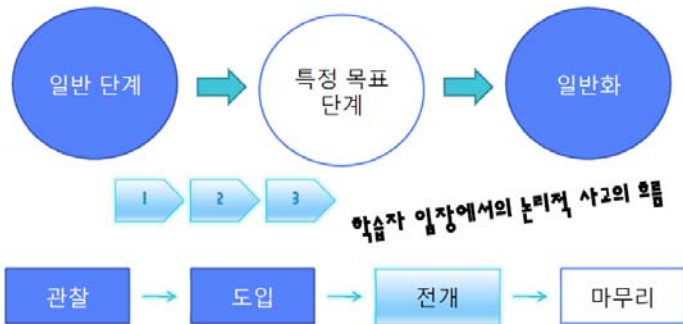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 모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될 수 있다. 첫째,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그 주체가 되는 ‘선행조직자’의 개념이다. 이는 체계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적 학습과정을 그 원리로 삼고 있다. 선행조직자의 개념은 Ausubel(1978)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요구되는 교사의 역할과 자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행조직자는 학습자가 습득한 기존의 학습내용, 즉 앞에서 언급한 현상학적 장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적 기본경험(individuelle Grunderfahrung: Gruhn, 2008)과 이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계획한 새로운 학습내용으로 연결해주는, 그래서 이를 사전에 계획·준비하여 교육현장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학교 및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현장교사를 의미한다. 선행조직자는 이를 위해 학습자에 대한 가능한 한 다양한 정보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근접발달지대(Zone of Proximal Development: Vygotsky, 1976)를 설정하고, 나아가 현장에서의 단계적인 Scaffolding을 통해 목표한 학습의 결과를 추구한다.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학습자를 위한 논리적인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 : Dewey, 1938)이다. Dewey가 말하는 논리적 의식의 흐름이란, 물리적인 경험이나 학습 속에 동반되는 인지의 과정을 뜻하며, 결과적으로는 인지 대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개별적인 ‘경험의 구조’ 속에서 도출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현장교육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선행조직자가 특정 지식이나 현상에 대해 전체적 윤곽(일반화되어진 내용)에서부터 체계적인 세부화(특정 목표 내용)의 과정으로, 또는 역으로 주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점점 복잡하고 풍부한 형태로 발전

시키는 등의 자연스러운 사고 및 의식의 흐름을 유도할 수 과정 상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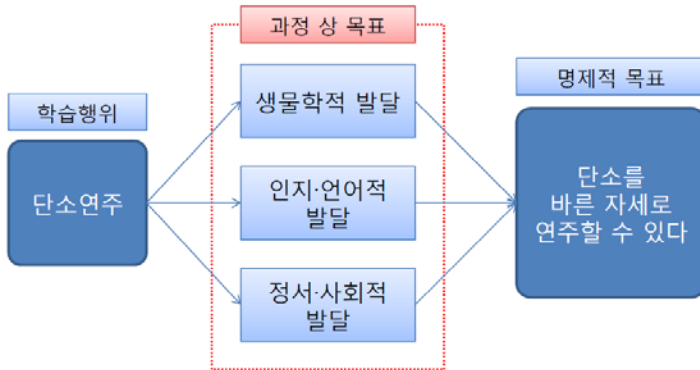
[그림 5] 근접발달지대 개념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재구성

즉 [그림 5]에서와 같은 근접발달지대에 적합한 단계적 Scaffolding을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하여 계획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결과물은 학습자에게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학습자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다시금 일반화된 사고의 결과물로 자리 잡게 된다. [그림 6]에서 우리는 선행조직자에 의해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자연스런 인식의 흐름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단계가 바로 근접발달지대의 확대를 뜻하고, 더불어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과정 상 목표의 단계를 의미한다.



[그림 6] 근접발달지대 설정에 따른 단계적 Scaffolding

두 번째 관점은 선행조직자가 다양하고 상이한 학습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계획하는 2차적인 교육목표, 즉 학습자의 활동 중에 나타나는 과정 상 목표의 설정이다. 교사가 흔히 설정하는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개념 중심의 명제적 목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선행조직자는 이러한 명제적 목표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방법적 접근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 상 목표의 설정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과정 상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제시를 위해 발달심리학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인간발달 영역에 대한 분류를 인용해 보고자 한다. 인간의 발달은 크게 신체적 발달을 의미하는 생물학적 발달과 인지·언어적 발달(Grimm, 1973; 1985; 1990; Wilkening&Krist, 1998), 그리고 대인관계를 비롯하여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적응 등을 뜻하는 사회·정서적 발달(Montada, 1983; 1984; 1993; 1998)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Santrock, 2006). 이는 태아기에서부터 영·유아기를 거쳐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인간의 주요 발달영역으로써, 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성장, 성숙의 모든 현상을 담고 있다. 선행조직자가 바로 이러한 발달의 영역을 학습자에게 적합한 과정 상 목표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 악기와 작은 악기의 연주를 비교할 때, 작은 악기의 연주를 위해서는 큰 악기에 비해 더 정교한 소근육의 움직임과 더 긴밀한 운동능력 간의 협응능력을 요구하는 반면, 큰 악기의 연주는 물리적으로 강한 체격과 힘을 필요로 한다. 학습자 혼자 하는 솔로연주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에 유리하고 연습하는데 있어서도 시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지만, 반면 연주에 있어 보다 큰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한편 동료들과 함께 하는 합주의 경우는 연주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대신에,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현장에서 공유하게 되는 공동체적 감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즉 동료와의 사회적 관계, 사회화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특정 곡을 악기가 아닌 목소리를 통해 연주해 봄으로써, 악기의 특징을 상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고, 다양한 몸의 움직임을 통해, 그리고 제시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개별적인 음악적 의미를 이해하게 됨과 동시에, 창의적인 인지능력 및 언어적 발달을 가능하게 한다(그림 7).



[그림 7] 2차적 교육목표로서의 과정 상 목표의 활용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음악과 교육과정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있는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2.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예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먼저 <표 1>과 같은 수업지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지도안은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며, 금성출판사(양종모 외, 2011)에서 발행한 중3 음악교과서 ‘대중 속의 음악’ 단원 중 ‘저기 달나라로’(Fly Me to the Moon)를 제재곡으로 삼고 있다. 본 수업지도안이 제시하고 있는 명제적 목표는 첫째, 제재곡을 올바른 자세로 부르고, 둘째, 스윙 리듬 패턴을 이해하며, 셋째, 제재곡의 다양한 노래형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표 1> 수업지도안

단원	대중 속의 음악 : 저기 달나라로(Fly Me to the Moon)
학습 목표	1. 제재곡 ‘저기 달나라로’를 올바른 자세로 부를 수 있다. 2. 스윙 리듬 패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3. 제재곡의 다양한 노래형태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학습자 중심의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하여 <표 1>에서 제시하는 명제적 목표의 내용을 <표 2>와 같이 재구성하였다.

<표 2>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의 예

학습 자료	ppt자료, 동영상, 지시봉, 조 팻말, 피아노, 키보드, 마라카스, 우드블럭, 봉고, 개별평가지, 모둠평가지, 형성평가지, 수업안내도 모형, 모둠별 평가표				
학습 단계별	도입 / 전개 / 정리 및 평가				
학습 흐름별	일제학습 / 개별학습 / 모둠학습				
학습 유형별	정보안내 / 정보탐색 / 정보분석 / 정보만들기				
활용 매체별	 웹,  멀티미디어자료,  ppt,  참고자료,  피아노,  피페  키보드  마라카스  우드블럭  봉고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학습 자료	과정상 목표1	과정상 목표2
도입 (10')	◆ 전시악곡 내용파악	· 전시 악곡내용에 대해 질문한다.	   	출발점 확인	
	☞ 개별 학습지	☞ 개별학습지를 통해 확인학습을 유도한다.			
	◆ 학습동기 유발	♪ 제재곡을 국악으로 연주한 동영상 감상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한다.		내적 동기 부여	미적 자극
	♪ 동영상 감상	☞ 악곡 내용을 생각하면서 감상하도록 유도 한다.			지적 반응
전개 (30')	◆ 학습목표 발견	· 감상곡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학습목표 를 유추하도록 유도한다.	   	학습자 수준의 학습 목표 설정	논리적 사고 & 관찰력
		 학 습 목 표  스윙리듬을 익히고, 악기로 연주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스윙리듬 경험하기	· 당김음에 의한 엇박자 리듬을 언어놀이 > (안녕)를 통해 경험한다. · 제재곡의 스윙 리듬 패턴을 언어 및 신체 움직임 표현을 통해 경험한다. · 제재곡의 멜로디만을 가사 없이 부르며, 신체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언어적 당김음	언어적 유회
				움직임 속의 당김음	언어 & 신체 협응
				멜로디 속의 당김음	음악 & 신체 협응

학습 단계	학습내용	교수 · 학습활동	학습 자료	과정상 목표1	과정상 목표2
전개	♫ 가사창	· 제재곡을 신체움직임 속에서 가사창 한다.		스윙 리듬 노래 부르기	음악 언어 & 신체 협응
	◆ 스윙리듬 이해	 · 움직임으로 경험한 스윙리듬에 대한 느낌을 발표하게 한다.		스윙 리듬의 이해	
		■ 학습목표 1의 확인 ■ 스윙리듬을 익힌다.		개념화	지적 반응
	◆ 대중가요 속 스윙리듬 찾기	· 율랄라세션의 ‘스윙 베이비’를 감상하며, 스윙리듬을 느끼게 한다.		개념 적용	지적 반응
	◆ 모듬별 탐구활동 제시	☞ 모듬별 탐구 활동 ☞ ◆ 달나라조: 가창+키보드를 활용하여 스윙리듬 표현하기 ◆ 마라카스조: 마라카스+봉고로 표현하기 ◆ 피페조: 피페로 표현하기 ◆ 스윙조: 우드블럭+동작으로 표현하기			
정리 (5')	◆ 모듬별 탐구활동 하기	· 모듬별 창의적인 표현이 도출되도록 유도 한다. · 모듬원 간 자유로운 의견교환을 유도한다. · 모듬별 연주를 통해 각각의 표현을 비교 하고 자유로운 발표를 유도한다. · 가창 및 기악합주를 한다.	 	음악적 사고의 확장	사회화 & 창의적 표현
	◆ 학습정리	· 느낀 점을 정리해준다.		이해	
		■ 학습목표 2의 확인 ■ 악기로 연주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 형성평가	· 형성평가를 통해 학습결과를 정리한다.			

<표 2>를 보면,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명제적 목표 외에 다음과 같은 과정 상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먼저 ‘선행조직자’의 관점에서 계획한 과정 상 목표는 ①전시 악곡에 대한 언급을 통해 학습자의 현재 상황을 의미하는 학습 출발점에 대한 파악에서부터 시작하여, ②흥미로운 미적자극을 통한 내적동기부여와 이에 따른 학습자의 자발적인 음악적 활동을 추구하고 있으며, ③음악적 발견과 탐색을 유도하는 학습자 수준에서의 자발적인 학습목표 설정을 통해 학습자의 지적반응을 선행조직자인 교사의 입장에서 재확인하고 있다. 수업의 전개부분에서는 명제적 학습목표로 설정한 스윙 리듬패턴에 대한 학습을 위해 먼저 ④학습자에게 익숙한 언어적 표현을 활용한 언어적 당김음을 경험하게 하고 있으며, 이후 ⑤익숙해진 언어적 당김음에 신체 움직임을 활용한 신체적 당김음을 추가함으로써 언어와 신체 영역 간의 협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⑥제재곡의 멜로디를 가사 없이 부르게 함으로써 처음절에 강세가 있는 익숙한 언어적 특징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스윙 리듬을 표방하는 신체 움직임과 동반시킴으로 청각적 지각능력과 신체 표현능력 간의 협화를 유도하고 있다. ⑦종래에는 가사창을 하게 함으로써 언어적, 음악적, 신체적 영역 간의 종합적 협화를 목표하였으며, ⑧이를 모듬활동으로 연계하여 창의적인 음악적 사고의 확장과 더불어 모듬원 간 사회적 관계의 성숙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단계에서는 ⑨이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적 이해를 유도함으로써 앞에서 제시한 명제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한편,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선행조직자 관점의 과정 상 목표 외에 또 다른 유형의 과정 상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과정 상 목표의 두 번째 유형인 ‘다양한 영역에서의 2차적 발달’이다. 위에서 소개한 단계적인 과정 상 목표의 기술 중 밑줄로 표시한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즉 흥미로운 자극을 통해 자연스러운 ㉠미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자발적인 음악적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음악경험을 담보하며, 학습자 수준에서의 자연스러운 ㉢지적반응을 통해 자기표현능력의 신장을 추구하는 등, 수업의 도입에서는 음악적 정서 신장에 대한 과정 상 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전개에서는 ㉣음악과 언어, 그리고 신체움직임 간의 자연스러운 협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모듬활동을 통한 사회화의 과정과 다양한 창의적 표현 또한 경험하게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수업지도안은 학습자의 학습출발점에서부터 명제적 목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단계적인 과정 상 목표를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나아가 학습자에게 적합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2차적인 교육의 효과까지 추구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현대 사회와 같이 급변하는 시대에는 이러한 변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역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중앙에서 통제하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만으로는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효과적인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대 교육은 중앙집권적 교육과정보다는 학교중심 교육과정(school-based curriculum)을 선호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교과서 중심의 교육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과정 상 목표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을 위해서는 먼저 선행조직자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이 담보되어야 한다. 학교중심 교육과정이나 과정 중심의 교육은 학생의 특성과 수준, 지역 및 환경과 같은 개별 교육여건에 따라 다르게 설계·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교사는 국가수준에서 의도하는 교육과정의 내용과 목표를 학생들의 성취로 연결시키는 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손승희, 2006). Eisner(1985)는 이러한 관계를 ‘의도된 교육과정’(intended curriculum)과 ‘실행된 교육과정’(operational curriculum)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데, 이는 교육적 계획과 현장에서의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차이를 가리키는 것이며, 이러한 차이는 상이한 학습자 또는 학습자의 조건에 의해 야기됨을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재구성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목표하며, 이는 학습자 개인의 상이한 조건과 배경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점진적이고 세부적인 과정 상 목표 아래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교육철학 및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문헌연구를 통해, 오늘날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에 있어 간과하고 있는 ‘과정 상 목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 및 제언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조직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의 과정 상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철학 및 교육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과정 상 목표란, 교과에서 제시한 명제적 목표를 개별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 발달의 정도 및 개별 환경에 따라 학습자 눈높이에 맞는 학습 환경 및 과정으로 재구성하는 가운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적 도구로써,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자기 확신과 전문성이 강한 교사일수록 교육과정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현장에서의 효과 또한 우수하다.

따라서 학습자 중심의 과정 상 목표 설정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가 교사에게 요구된다.

둘째, 관찰자로서의 교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과정 상 목표는 학습자의 발달의 정도, 관심의 크기, 음악학습에 대한 배경 등 개별적인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학습자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찰, 그리고 이에 따른 올바른 분석과 객관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실천적 사고와 지식 향상을 위한 교사의 끊임없는 자기개발이 요구된다. 교사의 직접적인 경험에 의한 실천적 사고와 지식의 결과는 교육과정의 재구성과 과정 상 목표의 설정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사의 다른 표현인 선생(先生)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받는 학습자보다 먼저 세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를 후대에 전달해야하는 책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사는 단지 교사자격증(형식지: explicit knowledge)만을 가진 사람 뜻하지 않으며, 미리 경험하고 사고하여 자신만의 결과물(암묵지: tacit knowledge)을 갖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교사자격 취득의 과정을 통해 ‘더 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따라서 교사는 개별적 현상에 대해 전심에서 치사로, 또는 형태적(figural) 표상에서 형식적(formal) 표상으로 발전하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과 관계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경험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2차적 재구성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넷째, 앞에서 언급한 과정 상 목표를 활용한 학습자 중심의 음악교육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실천의 중심에 있는 교사의 역할을 담보하고 지원하는 환경적, 제도적 조건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사의 자율성과 더불어 체계적인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인 하나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권덕원·석문주·최은식·함희주 (2011).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김소영 (2004), 단위학교 중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의 교사참여에 대한 인식: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영봉·김경수·강병재·나항진·박선미·박영래·박혜경·이덕난·이명숙 (2008). 교육학 개론. 서울: 서현사.

- 김평국 (2004)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과 내용 재구성 실태와 그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22(2), 135-161.
- _____ (2005) 중등학교 교사들의 교과내용 재구성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교육과정연구*, 23(4), 91-130.
- 박순경 (2003). 교육과정 탐구 주체로서의 교사 전문성 논의에 대한 대안적 관점. *교육과정연구* 41(2), 75-92.
- 손승희 (2005). 교과내용 재구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6). 교과내용 재구성의 의미와 발전 방향. *교육연구논총*, 27, 109-125.
- 윤현진 (2002). 대학의 유아음악 교육과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음악교육 실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은용기 (1998). 기초강연: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발전방향. *열린교육연구*, 6(1), 181-189.
- _____ (2001). 수준별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과서 내용구성 방안. *열린교육연구*, 9(2), 45-76.
- 이동원 (2002).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교과교육공동연구 학술세미나 자료집*.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367-382.
- 이인효·이나미·김양분·이혜영·양미경·강영택·이용숙 (1996). *열린교육 현장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6-10.
- 이인효·이나미·김양분·황혜정·김정원·유용식 (1997).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방법 실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7-4.
- 이인효·김정원·최유림 (1998),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98-14.
- 조대현 (2010). 예비 오디에이션 단계에서의 개념도를 활용한 음악교수 모델 제안. *음악교육공학*, 10, 95-112.
- _____ (2011a). 음악교과 재구성에 있어 과정 상 목표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 *한국음악교육학회 여름학술세미나 자료집*, 197-202.
- _____ (2011b). 예비교사의 통합적 이해를 위한 개념도 활용 교사교육 모델의 제안 - 음악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제52집, 95-123.
- 주대창 (2011). 음악 교과서 재구성의 방향. *직무연수자료집: 서울교육* 2011-555, 6-23.
- 정순옥·김수연 (2008), *협동놀이로 재구성한 교과활동이 자폐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자폐성 장애연구*, 8(2), 87-110.

- 진중철 (2001), 학교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저해요인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함혜란 (2001). 음악 학원에서의 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 : 춘천 지역의 음악 학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Ausubel, D. P. (1978). Educational Psychology : A cognitive 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 Cho, D. H. (2002). Untersuchung zur Situation der musikalischen Früherziehung in Süd-Korea am Ende des 20. Jahrhunderts. Universität Würzburg.
- Dewey, J. (1938). Experience and Education. Collier Books.
- Eisner, E. W. (1985). The Educational Imagination -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2nd ed. Macmillan.
- Grimm, H. (1973), Sturuckturanalytische Untersuchung der Kindersprache. Huber.
- _____ (1985), Der Spracherwerb als Lehr-Lern-Prozess. Unterrichtswissenschaft, 1, pp. 6-16.
- _____ (1990), Über den Einfluss der Umweltsprache auf die kindliche Sprachentwicklung. In: Neumann, K. & Charlton, M.(Hrsg.), Spracherwerb und Mediengebrauch, pp. 99-112. Narr.
- Gruhn, W. (2008). 아이들은 음악이 필요합니다 - 어린 아이들의 음악적 잠재력은 일찍부터 장려되고, 발달되어야 합니다(조대현 역). 서울: 도서출판 DanSing (원본발간일 2003년).
- Hager, R. A. (1993). Open Education: a Look at the subtleties. In: McDonald, J.(Ed.), Open Education as a Component of Restructuring. Phi Delta Kappa.
- Hobmair, H. (1997). Psychologie. 2. Aufl. Köln: Stam.
- Lewy, A. (1991). National and school-based curriculum development. Routledge & Kegan Paul.
- Klein, M. F. (1992). A perspective on the gap between curriculum theory and practice. Theory into Practice, 31(3), 191-197.
- Montada, L. (1983). Moralisches Urteil und moralisches Handeln - Gutachten über die Fruchtbarkeit des Kohlberg-Ansatzes. In: 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Hrsg.), Wehrpsychologische Untersuchungen, 18(2). (Kap. 18).

- _____ (1984).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Tasks, problems, perspectiv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7, pp. 267-286.
- _____ (1993). Moralische Gefühle. In: Edelstein, w., Nunner-Wickler, G. & Noam, G.(Hrsg.), *Moral und Person*, pp. 259-277. Frankfurt: Suhrkamp.
- _____ (1998). *Entwicklungspsychologie*. Weinheim: Beltz.
- Peters, R. S. 이홍우 역 (2003). *Ethics and Education*. 서울: 교육과학사.
- Rogers, C. (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Santrock, J. (2006). *Child Development*(10th ed.). McGraw Hill.
- Shulman, L. S. (1987). Knowledge and teaching: Foundation of the new reform. *Harvard Educational Review* 57, 1-22.
- Vygotsky, L. S. (1976). Play and its role in the mental development of the child. In: J. S. Bruner, A. Jolly & K. Sylva(Eds.), *Play: Its role in development and evolution*(537-554). N.Y.: Basic Books.
- Wilkening, F. & Krist, H. (1998). Entwicklung der Wahrnehmung und Psychomotorik. In: Montada, O. *Entwicklungspsychologie*, pp. 487-517, Weinheim : Beltz.

ABSTRACT

A Music-Curriculum Reconstruction's Model Using the Procedural Goal

Cho, Dae Hyun

Today, music education does not put value on spontaneous experiences or musically stimulated train-of-thought but rather aims only to improve musical knowledge and practical techniques. This approach does not promote natural experiences or voluntary learning by the learners themselves, but instead only provides and assesses standardized information, thereby interfering with the flow of active and logical thoughts which otherwise could originate from a multitude of different perspectives. At this juncture, this research intends to rid the system of mechanical and uniform learning and investigate into the importance of procedural goals which encourage learners to find and think in a broader manner for the gain of knowledge and sophistication, and conceptualize and value the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philosophy and psychology. As a result, a model for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by utilizing the procedural goals is set up, and it is suggested as a major prerequisite for reconstructing the curriculum.

key words: Reconstruction of Music-Curriculum, Procedural Goals, Learner-centered Education, Stream of Consciousness

투고일: 9월 27일, 심사(수정): 10월 20일(11월 10일), 게재 확정일: 11월 17일